

학교폭력의 실태분석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esent Situation of Violence in School and Improvement Program

Youngman Park^{a,1}, Jeahwan Jeong^{b,*}, Eunjung Kim^{c,2}

^a Department of Security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JungWon, 85 Goesan-gun, Chungcheongbuk-do, Republic of Korea

^b Department of Science, University of JhuSun, 309 Pilmun-daero, Dong-gu, Gwangju, Republic of Korea

^c Department of Security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Yeosu, Myeongseong-ro, Yeosu-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ABSTRACT

School is the place where teenagers spend most of their time, forming friendships and receiving guidance from the teachers. Their life in school is a procedure of learning lessons before advancing into the society. However, in this place of learning, misdeeds such as violence, extortion and bullying are actually happening, some of which developing into suicide, murder and prostitution. For this reason, violence in school, especially, raises concerns as a serious social problem these day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more practical improvement programs to solve the problem of the violence in school, by first investigating the concept and the actual situation of school violence, and by better understanding the problems resulted from the school violence. The researchers of the study suggest as follows: First is about strengthening the education that builds students' personality, where we investigate the methods of personality education that suit with the current situation and suggest what is necessary to improve them. The second is about expansion of the functioning of families and of the educational role of the household heads, where we argue the importance of education in the family in addition to the education in school, and we suggest the right way for the parents to discipline their children. The third is about expansion of counseling professionals and improving social environment, where we explain the importance of counseling professionals in preventing and solving the issues in school violence and suggest expansion of these professionals and also suggest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dedicated counseling room in schools. The fourth is about use of school sheriffs, where we suggest dispatching school sheriffs nationwide and fully use them as a countermeasure against school violence.

KEYWORDS

School violence
bullying
suicide
strengthening the education
school sheriffs

학교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 교우관계를 형성하고 지도를 받으면서 사회로 나가기 위하여 많은 것을 배우는 터전이다. 이런 배움의 터전에서 폭행, 금품갈취, 집단 따돌림 등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일들의 결과로 자살, 살인, 성매매 등의 극단적인 범죄로 까지 이어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학교폭력의 개념과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다 실제적인 학교폭력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개선방안은 첫째, 인성교육의 강화로 현재의 현 실정에 맞는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자살
인성교육 강화
학교보안요원

인성교육의 재조명 및 필요성 부분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고 둘째, 가정의 기능과 가장교육역할 확대로 학교교육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부모들의 올바른 가정교육에 대해 제시하여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셋째, 전문상담 인력의 확충과 사회적 환경개선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에 있어 중요한 전문 상담인력 확충과 전문상담실 설치·운영에 대해 제시하였고, 넷째, 보안요원의 활용으로 전국적으로 학교 내에 학교보안요원 배치 후 적극 활용에 대한 부분 등을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제시하였다

© 2015 Korea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All rights reserved

* Corresponding author. Tel. 82-31-538-5561. Fax. 82-31-538-5569.
Email. ys119@gg.go.kr
1 Tel. 82-31-670-5194. Email. dykim@hknu.ac.kr

ARTICLE HISTORY

Received Oct. 31, 2014
Revised Dec. 02, 2014
Accepted Mar. 11, 2015

1. 서론

학교란 교실과 칠판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전문적 교사의 지도에 따라 집단으로서의 여러 학생들이 지식을 얻는 형태의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위키백과, 2014)으로 정의하며,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 교우관계를 형성하고 지도를 받으면서 사회로 나가기 위하여 많은 것을 배우는 터전이다(경찰백서, 2008). 학교에서 아동 및 청소년들은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식을 배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간관계를 비롯해 많은 경험을 하게 된다. 초기 청소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인간관계가 갖는 특성들은 당시의 생활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성장과정에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형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본 틀이 된다(이봉주 외 2인, 2009).

배움의 터전인 학교 안팎에서 폭행, 금품갈취, 괴롭힘, 집단 따돌림 등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일들의 파급으로 살인과 자살, 성매매 등의 범죄로 까지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경찰백서, 2008). 학교폭력의 유형으로는 말로 하는 협박이나 욕설, 인터넷 채팅, 이메일, 휴대전화로 하는 욕설과 비방, 집단 따돌림, 돈 또는 물건을 빼앗김, 손, 발 또는 도구로 맞거나 특정한 장소에 간힘 등이 있으며, 이러한 학교폭력은 점차적으로 지능적이고 다양해지고 있고 점차적으로 학교폭력의 연령이 저연령화되고 있고, 개인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폭력이 늘고 있으며, 학교폭력의 유형이 점차적으로 잔인하고 흉포화 되고 있다(찾기 쉬운 생활법령, 2014).

학교폭력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학교폭력의 원조국가로 알려진 일본은 1950년대부터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왔으며, 아직까지 이즈마나 청소년의 비행문제가 심각한 수준이고, 미국은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잦은 총기 난사사건 등 총기나 흉기를 사용하여 학교안전을 위협적인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노르웨이는 1982년 남학생 3명이 집단적 괴롭힘에 견디지 못해 잇따라 자살을 하게 된 사건으로 학교폭력이 주목을 받기 시작해 실태 조사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는 실정이다(김상곤 외 3인, 2013).

또한 우리 사회가 학교폭력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학교폭력이라는 실상보다 그 실상이 갖는 의미를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우리나라가 학교폭력을 비롯해서 가정폭력, 사회폭력, 정치폭력, 경제력에 이르기까지 사회전반에 걸쳐 갖가지 폭력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성장기 청소년이 사회화과정을 철저하게 거치게 되는 학교라는 교육현장에서 폭력이 벌어지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박기민, 2000).

학교폭력이 한국에서 사회적 관심사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부터이고 사회적 이슈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1995년부터이며, 본격적인 관심과 지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이 제정된 2004년부터 시작되었다. 2005년에는 관계 부처가 연계하여 학교폭력 예방 대책 5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왔으며 2007년 2월에는 '5대 폭력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의 2년간 추진한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및 저해 요인을 심층 분석하여 15개 과제를 선정하여 2009년에는 제2차 학교폭력 예방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좀처럼 학교 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2013, 청소년백서).

한국은 2003년 이후 OECD 가입국 중 계속해서 학생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으며, 2013년 통계청에 따르면 10세에서 19세의 자살이 2011년에 373명으로 2001년에 비해 67.3%나 증가하였다(박병식, 2013). 또한 학교폭력의 정책부재로 인하여 100명당 1명의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의 자살과 학업포기의 대부분의 원인이 학교폭력이 원인이 된다는 점을 감안 할 때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학교, 학생이 학교폭력에 대하여 보다 실제적인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문제의 실질적 대책에 대한 변화는 학교 폭력은 더 이상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모두가 전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 국민정서에 형성되고 있으며,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과 사건사고가 자주 언론공개 되면서 이에 따른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 늘어나고 점차적으로 다양하고 심각해지는 학교폭력문제에 대한 부분의 부각되고 있어 문제해결에 대한 부분은 학교를 비롯해서 국가에서도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민경삼, 2013).

이러한 인식변화로 인해 이제 학교폭력은 간단히 해결 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가정 내에서는 물론 우리 사회 모두가 다 같이 풀어가야만 하는 어려운 과제가 되었다. 하지만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심각한 문제성으로 인해 많은 대책과 해결방안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확한 해결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까지의 학교폭력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동시에 학교폭력의 개념과 이론, 학교폭력의

원인과 유형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학교폭력의 실태분석을 통해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부족하거나 문제점에 대해 보다 실제적인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방안을 이끌어 내고자하는데 있다.

2. 이론적 배경

1.1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에 대한 실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정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폭력이란 신체에 가하는 물리적 폭력이외에 심리적 폭력, 언어폭력 등을 포함하는 것이 사회적 통념으로 폭력의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며, 폭력은 직접 사람에 대하여 행해지는 것을 요하지 않고 물건에 대한 유형의 행사도 간접적으로 사함의 의사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임웅, 2007).

학교폭력이란 용어는 현 청소년 폭력예방 재단의 전신인 학교폭력 예방 시민모임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나 학교라는 교육현장에서 폭력이 행하여진다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다가 1997년 학생들의 폭력이 급속히 악화 되고 이로 인하여 자살하는 학생이 늘어나자 정부기관 및 매스컴 등에서 학교폭력이란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학교폭력이란 용어를 정의함에 있어서 폭력에 대한 대상이나 범위, 장소, 형태, 폭력행사의 정도, 주체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아 정확하게 개념을 정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 청소년 교육연구소에서는 자신보다 신체적·심리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학생에게 가해지는 위협 또는 신체적·언어적 폭행 상태, 금품 갈취, 성폭행, 집단적 따돌림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 폭력예방 재단에서는 학교 안이나 밖에서 학생이라는 인격체가 중심이 되어 개인적·집단적으로 경험하는 신체적 폭력(폭행, 금품갈취), 정신적 폭력(욕설, 집단따돌림, 협박), 성적 폭력(성폭행, 성희롱, 강간)과 같은 모든 유·무형의 폭력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자신보다 신체적·심리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학생에게 가하는 유·무형의 폭력으로 정의하고 있다(권정관, 2012).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학교폭력은 학교내외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¹⁾, 사이버 따돌림²⁾,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³⁾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즉, 학교폭력을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학교주변에서 발생하는 것까지 포함시키자는 견해와 학생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폭력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폭력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것이라면, 이것도 학교폭력으로 보아야한다는 견해가 있다(R. A. Astor, 1977).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한데 하이네만(F. Heinemann)은 최초로 'mobb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집단 괴롭힘을 정의하였다. 'mob'는 폭력에 연관된 다수의 익명의 집단이며 집단이 그 집단의 일반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한 개인을 공격하는 것이라 정의하여 가해자집단의 의미를 강조 하였다(손갑주, 2005).

또한 올 배우스(1996)는 학생사이의 폭력에 대하여 한명 또는 여러 명이 다른 학생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부정적 행위(위협하거나, 조롱하거나, 들볶거나, 별명을 부르는 짓, 때리거나, 밀치거나, 발로 차거나, 꼬집거나 붙잡는 짓 등 물리적 접촉)에 노출된 때라고 말했으며, Leonard Berkowitz(1974)는 공격행동과 폭력을 구별하여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상처를 입히는 것'이며, 여기에 신체적 물리적 상해나 언어적 상해 등을 포함시켰다.

학교폭력에서 폭력의 개념도 과거에는 단순한 물리적 폭력, 금품갈취 정도로 학교폭력을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학생들 간의 폭력, 금품갈취 등으로 한정지어 논의하였지만, 최근에는 집단따돌림(왕따), 사이버따돌림, 괴롭힘, 강제적 심부름,

1) 학교내외에서 2명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2)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동법 제2조 제3항).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항

사이버 상에서의 욕설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피해자가 느끼는 괴롭힘, 수치심등과 같은 심리적, 정신적 폭력뿐만 아니라 어떤 해악을 끼친 의사나 의도를 가진 모근 행동을 포괄적으로 학교폭력에 포함되고 있다(민경삼, 2014). 또한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지역적 범위의 폭력행위의 실태 등을 종합해 볼 때 학교 안과 밖, 등하굣길, 그리고 피해자의 신분이 학생일 경우 등을 학교폭력의 범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1.2 학교폭력 이론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미성숙에서 성숙의 단계로 발전해 가는 과도기 과정의 청소년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는 청소년이 육체적으로는 성숙하지만 정신적, 지적, 정서적으로는 완전치 못하여 주위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여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가 쉽고 불규칙한 생활태도를 가지게 되어 폭력적인 행동을 가져오게 된다. 특히 기성세대와의 가치관의 대립에서 생겨나는 갈등이나 사회적 모순에 대한 반감이 청소년 비행과 폭력으로 이어지기 쉽다. 학교폭력에 대한 이론을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이다.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은 미국의 심리학자인 Albert Bandura가 1977년에 출간한 「사회학습이론」을 통해서 소개된 이론으로 사람의 행동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주어진 상황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아동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새로운 행동을 획득하게 되는 것으로 부모나 교사에게 받은 상벌과 타인의 여러 상황에서 행하는 반응과 결과를 관찰하고 여러 정보 들을 통합하여 그 결과에 대한 규칙을 형성한다. 즉, 타인을 모방하는 경향이 강한 청소년들은 타인의 폭력적인 행동을 모방하여 새로운 폭력 기술을 습득하고 폭력에 대한 자제력이 떨어져 죄의식 없이 폭력을 행사하면서 문제해결의 방법으로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 따라서 어린 시절의 폭력에 대한 관찰과 경험이 기본적인 인격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이론이다.

둘째, 하위문화이론(Subculture theory)이다. 하위문화이론(Subculture theory)의 대표적인 학자인 Cohen에 의하면 사회에는 각 계층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중심문화가 있는데, 중간계층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형성된 중심문화와 하위 층의 청소년 문화와는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중간계층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제도는 학교이며, 학교의 학업경쟁에서 실패한 청소년과 그런 중심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하위 층의 청소년들이 중심문화에 반발하여 자신들의 가치관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집단을 형성하여 중간계층의 가치관에 대항하면서 학교폭력을 조장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셋째, 사회통제이론(Social Control theory)이다. 사회통제이론(Social Control theory)은 Hirschi에 의해 체계화된 이론으로 청소년이 비행을 범하게 되는 것은 스스로에게 비행을 강요하는 신념보다 사회와 유대관계의 결여로 인하여 청소년의 비행이 일어나게 된다고 주장한다. 즉, Hirschi는 학교폭력은 자신을 사회와 묶어두는 결속력이 약했기 때문에 일어나며 모든 청소년들이 잠재적인 범률위반자이지만 자신의 비합법적 행동이 부모와 친구, 이웃 그리고 학교 등의 관계에서 회복할 수 없는 해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통제받는다라는 이론이다. 다시 말해, 사회통제이론(Social Control theory)은 청소년과 관계하고 있는 사회적 통제가 약화되거나, 타인의 관심을 받지 못할 때 학교폭력 혹은 일탈행위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1.3 학교폭력의 발생원인

학교 폭력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나눠보자면 개인적인 요인과 가족적 요인으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개인적인 요인으로 공격성이나 삶의 귀인방식, 낮은 자아 존중감과 우울 및 불안 등을 들고 있으며 가족적 요인으로는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태도 및 양육행동, 부모간의 폭력도 원인이 되고 있다(한국청소년 상담복지 개발원, 2012).

학교폭력의 원인은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이 작용하여 발생하는 경우로 그 원인들은 학교 내의 요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 폭력이 학교폭력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도 방대하다(김학배, 2014).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해 보면 가장 직접적인 요인으로 다음의 세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개인의 심리적 요인이다. 청소년은 빠른 신체적 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하여 심리적으로 불안해하여 심리적, 정서적 불균형으로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정서불안에 대하여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있어서 좌절과 그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학교와 가정생활에 대하여 의욕을 잃게 되어 욕구충족의 수단으로 일탈이나 학교폭력

이 일어나게 된다(권정관, 2012:48).

학교폭력의 가해자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특성은 충동성과 공격성으로 이는 사회질서나 규범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분노를 조절하거나 화를 참는 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에게 닥친 상황의 해석과 인식이 일반 청소년보다 많은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노성호, 2004).

또한 가해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개인적 특성은 자기 자존감의 저하와 자기비하, 욕구불만에 대한 인내심의 부족, 열등의식, 배려심의 결핍, 정서불안, 왜곡된 자기우월감의 추구 등의 행동들이 청소년에게 발견된다(김선형, 2005).

둘째, 가정 환경적 요인이다. 가정은 청소년의 지능, 성격, 정서 등의 형성이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이면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다. 따라서 가정은 청소년의 인격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 구성원들 간에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지침을 가르치고 정서를 함양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빈곤, 부모의 성향 등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청소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중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와 가정의 사회적 지위 등과 같은 요인들이 학교폭력 혹은 청소년 비행에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다른 요인들은 가족이라는 테두리에서 치유가 가능하지만 가정이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아무리 우호적이라 해도 청소년 비행과 학교폭력의 예방과 억제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전병일, 2009).

셋째, 학교 환경적 요인이다. 학교는 청소년들의 교육과 학습의 장소이자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보내는 삶의 터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들의 잠재능력과 지적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안전과 복지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전인교육과 복지의 이중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공공기관이라 할 수 있다(전병일, 2009). 그럼에도 학교는 대학입시와 성적 향상에만 집중하는 교육적 기능만을 수행함으로써 무단결석, 중퇴, 자살 등과 같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어 학교와 교실이 붕괴되는 등의 사회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또한 진학위주의 수업과 진로지도에 열등감과 불만을 품고 이러한 체제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은 가출 혹은 장기 결석, 중퇴, 퇴학 등으로 이어지면서 이들이 학교근처를 배회하거나 학교에 무단으로 난입하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심지어 교사까지 폭행하는 등의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다(곽병욱, 2011).

3. 학교폭력의 실태와 검거 및 피해 현황

1.1 학교폭력의 실태(2013년 1차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중심으로)

학교폭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반시민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에게도 심각한 사회적, 국가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1990년대 초반부터 많은 대책과 해결안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교내·외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과 그 피해로 자살을 하는 학생들의 숫자는 점차 늘고 있는 실정이다.

Table 1. Student grades incidence of school violence

distinguish	Elementary	Middle	High School
Ratio	3.8%	2.4%	0.9%

source : source : Min(2014) References - Department of Education, 2013 First School Violence Survey data.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몇 가지 특징은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발생 비율이 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생 2.4%, 고등학생 0.9%로 나타났다.

Table 2. Types of school violence rate

distinguish	verbal abuse	Bullying	Assault confinement	practice extortion	stalking	cyber stalking	Compulsory Errand	forced molestation
Ratio	34.0%	16.6%	11.7%	10.0%	9.2%	9.1%	6.1%	3.3%

source : Min(2014) References - Department of Education, 2013 First School Violence Survey data.

괴롭힘과 집단따돌림 유형의 집요한 학교폭력은 여전히 심각하였으며, 친구의 학교 폭력을 외면하는 학생이 많았다. 여전히 언어폭력이 34%로 높게 나타나 학생들 사이의 비폭력언어순화를 위한 교육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School violence occurrence place

distinguish	in side	out side
Ratio	69.3%	30.7

source : Min(2014) References - Department of Education, 2013 First School Violence Survey data.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때는 주로 쉬는 시간이나 하교시간 이후 발생하였고, 학교 폭력 발생 장소는 응답자의 69.3%가 학교 안에서 발생한다고 응답해 학교 안에서의 교사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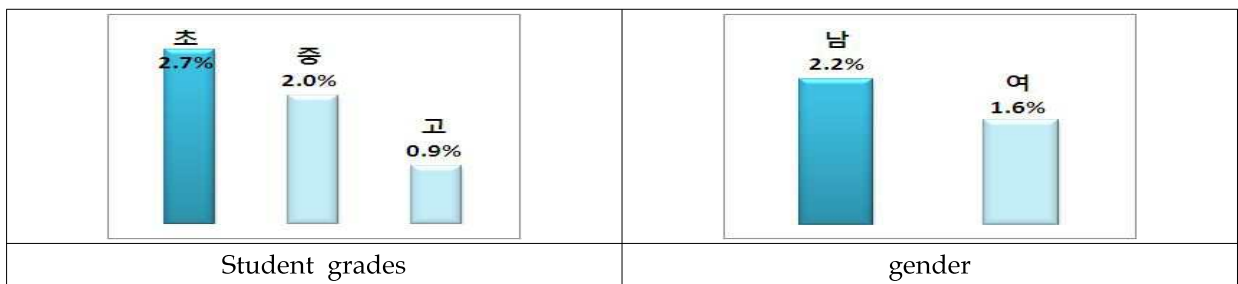


Fig. 1. Student grades / gender damage rate of response

source : source : Min(2014) References - Department of Education, 2013 Second School Violence Survey data.

Table 4. School violence attentat type

distinguish	Bullying	verbal abuse	cyber stalking	assault • confinement
Ratio	28.8%	25.8%	12.2%	9.1%

source : Min(2014) References - Department of Education, 2013 Second School Violence Survey data.

학교폭력 가해유형별로는 집단따돌림(28.8%), 언어폭력(25.8%), 사이버 괴롭힘(12.2%), 폭행·감금(9.1%)의 순으로 나타났다.

1.2 학교폭력의 검거현황

2013년 경찰청의 경찰백서의 학교폭력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학교폭력 검거인원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5,000명을 유지하다가, 2011년에는 21,957명으로 감소되었으나 2012년에는 다시 23,877명으로 약8.3%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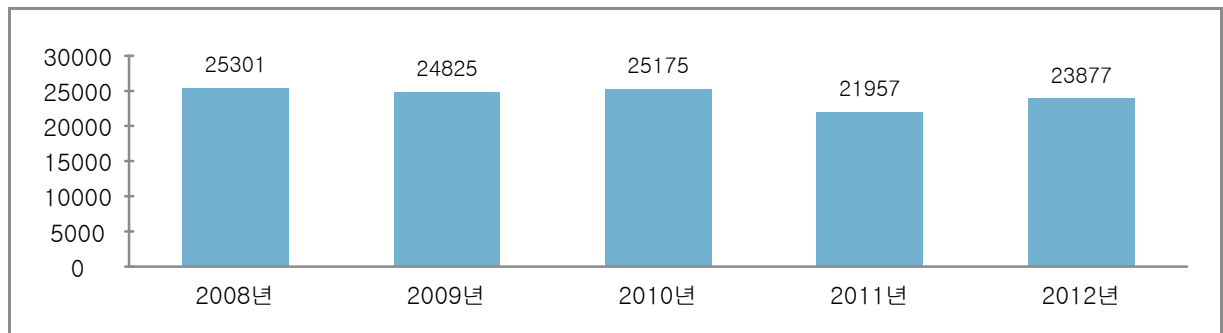


Fig. 2. School violence present condition of arrest(2013, Police White Paper)

유형별 검거인원을 살펴보면 폭력사건이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금품갈취가 약25%,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검거도 연평균 500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2010~2012 Type of School Violence Arrest Status

year	distinguish	total		violence		ripoff		sexual violence		besides	
		arrest	detention	arrest	detention	arrest	detention	arrest	detention	arrest	detention
2010		25,175	143	15,537	28	5,992	31	575	64	3,071	20
2011		21,957	103	14,837	28	3,902	24	444	43	2,774	8
2012		23,877	333	14,637	97	5,912	127	509	67	2,819	42

source : Police White Paper(2013), p.98.

1.3 학교폭력의 피해현황

교육부의 2013년 제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정보 공시 분석결과⁴⁾에 따르면 여학생이 1.6% 남학생이 2.2%로 여학생 보다는 남학생이 학교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초등학교가 2.7%, 중학교가 2.0%, 고등학교가 0.9%로 연령이 낮을수록 피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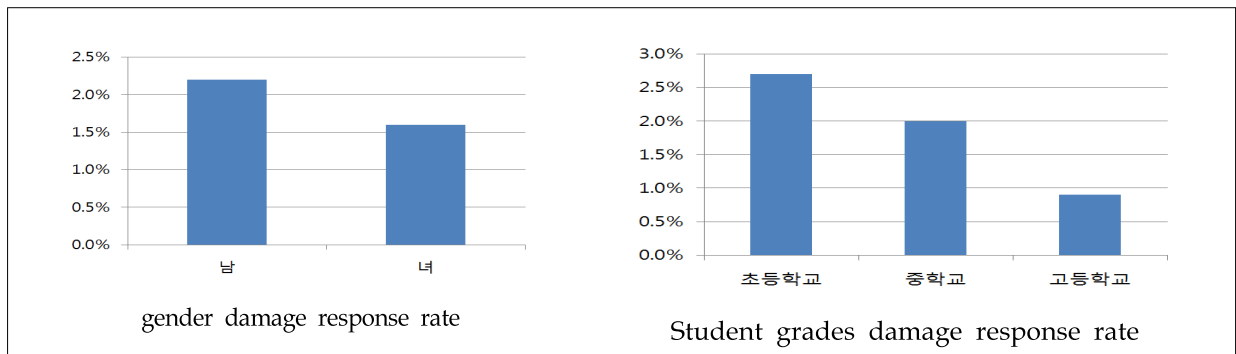


Fig. 3. School violence present condition gender and Student grades damage response rate(2013, Police White Paper)

학교폭력의 피해 유형의 응답건수는 16만 1천 건(중복응답)으로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폭행 및 감금, 사이버 괴롭힘 순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 갈취와 강제심부름 등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학교폭력은 감소하였으나, 잘 드러나지 않는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등은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학교폭력은 주로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등 학교 일과시간(63.6%)과 학교 안(71.6%)에서 발생하였으며, 학교폭력을 당한 후 약71.6%가 힘들었다고 답하였으며, 가장 많이 든 생각은 학교가기 싫었다(19.0%)가 가장 많았으며, 우울하고 슬펐다(12.3%), 상대방을 괴롭히고 싶었다(12.0%), 죽고 싶었다(9.5%) 순으로 응답하였다.

4) 교육부에서 2013년 9월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초등학교4학년부터 고등학교2학년까지 약 454만 명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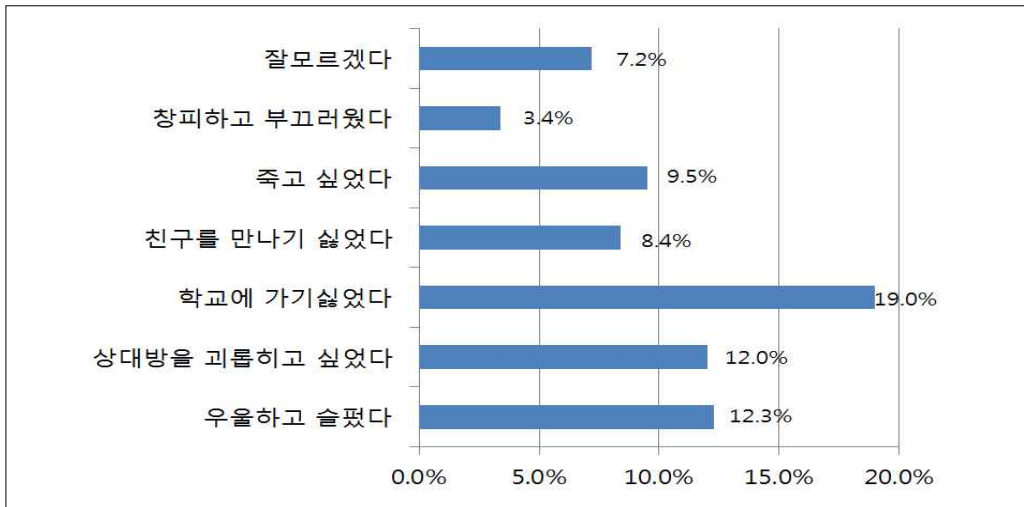


Fig. 4. School violence victims suffered after thought (2013, Police White Paper)

4. 학교폭력 발생의 문제점 파악

1.1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인성교육의 부재

학교는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과 지적능력을 향상시키고 인성교육을 통해 미래 우리사회의 훌륭한 인재가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김학배, 2014). 우리나라의 현 교육실정은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교육방법은 학급이나 학교에서 또래와의 공유가 아닌 자기중심적인 사상을 만들고 개인주의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교육방법으로 인해 학교 안에서 입시경쟁에서 낙오되는 낙오자가 발생하게 된다.

학교의 입시경쟁에서 낙오된 이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공격성과 우울, 불안으로 표출되어 집단 따돌림과 폭행현상을 나타내게 되어 학교폭력에 가담하게 된다(이용미, 2014).

학교폭력에 가담하는 청소년의 경우 공격적인 성향이 매우 높고 반사회적 경향이 강한 반면, 피해학생은 불안함과 우울감을 보이게 된다. 이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입시위주의 정책과 인성교육이 약화 되면서 성격적 결함이 나타나 주위에 배려가 없고 개인이기주의가 팽배되면서 상대적으로 자신보다 약한 친구들을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즉, 인성교육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격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학교폭력에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장숙경, 2007).

또한 입시위주의 교육정책은 청소년들의 모든 활동을 대학입시위주로 짜여져 자원봉사까지도 대학입시에 활용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청소년 자신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 채 맹목적으로 학교나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오늘날의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부상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1.2 가정의 기능 및 역할의 축소

과거 우리나라는 3대가 같이 사는 대가족 사회였다. 이러한 대가족 생활을 통하여 자녀들의 양육과 교육, 여가 및 인간관계 등 거의 모든 기능이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루어져 왔다. 즉, 가정은 교육의 장인 동시에 생활의 장이며 인격과 인격이 만나 상호작용을 통하여 지능적, 정서적, 성격적 성장과 발달을 가능하게 하는 삶의 안식처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 그러나 전통적인 가정이 붕괴되고 핵가족화 되면서 가정의 이러한 기능 또한 축소가 되고 가정교육이 전문교육기관으로 자연스럽게 이관되면서 가정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었다. 이러한 가정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는 빈곤가정, 결손가정 등 다양한 문제 가정들의 출현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 가정의 형태와 성격이 학교폭력 혹은 청소년의 일탈에 연관

성을 찾을 수는 있지만 학교폭력을 야기 시키는 주요요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최근 들어 정상가정의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이나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점점 높아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 일탈이나 학교폭력의 원인을 결혼 가정이나 빈곤가정 등의 가족의 형태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부모의 과잉보호나 무관심 또는 부적절한 교육방식에도 관심을 기울여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강숙경, 2007).

1.3 유관 기관의 예방활동 미흡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나 부모의 상담활동과 유관기관의 예방 활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상당수의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이해 부족과 양육방식이 왜곡되어 있고 자녀들에게 애정표현방법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아버지 교실, 어머니 교실 등과 같은 소모임을 통하여 부모들에게 일관성 있는 양육태도를 확립시키고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유관기관에서는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폭력은 피해 혹은 가해 당사자, 그들의 부모나 교사, 학교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원인은 사회 전반에 걸쳐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나 상담소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교육현장에서만의 문제가 아닌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인식하고 지금과는 다른 보다 적극적인 활동으로 여러 유관기관들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용해 학교폭력을 위한 다양한 전개방안은 물론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1.4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한계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잘못된 인식과 예방을 하는 차원으로 학교폭력예방 관련 교육을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 1항에 의해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들은 학기별로 1회 이상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은 전교생을 모아놓거나 학년별로 강당에 모아서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예방교육에 대한 기대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 예방교육은 인지적인 면이 강해서 동기유발로 이어지기 어렵다. 기존의 예방교육은 학교폭력에는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는지 학생들이 알게 하고, 그로 인한 처벌에 대한 내용, 또 학교폭력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고통을 주는지에 대한 인지적 접근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인지중심의 예방교육은 실제로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

학교폭력 예방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사는 예방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신경 써서 교육을 실시하겠지만, 학교폭력에 대해 무지하거나 관심이 없는 교사는 같은 프로그램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이끌어 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는 교사의 재량에 따라서 예방교육의 정도와 효과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하며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대로 예방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송명화, 2014).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학교폭력 문제를 학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시위주의 교육, 학교의 비교육적·비격적인 현장 내용을 변화시켜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방된 학교의 구성과 함께 교사와 학부모간의 적절한 의사소통을 통해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와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들이 학교폭력에 관한 인식을 바로하고 학생들이 혼란을 겪는 것을 방지 하여야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교 안에서 활용 가능한 방안으로 인성교육의 강화, 가정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 상담인력 확충과 사회적 환경 개선, 보안요원활용 등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1.1 인성교육의 강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인성이다. 즉, 인성은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다. 요즘 들어 학교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인성교육이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예전에 교육방식인 주입식 교육에서

지금의 변화된 교육방법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뭔가를 끄집어내고 찾아내는 교육으로의 전을 비롯해서 기업들의 채용시스템이 인성검사 등의 비중이 확대되는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인성의 중요성에 대한 많은 전문가들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인성교육이 학교 폭력과 같은 많은 문제들의 해결책이 되는 기본이 되기도 하지만 인성교육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교육의 든든한 기본 밑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의 대부분은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발생한다. 학생들의 충동조절과 인내심을 기르도록 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그동안의 많은 전문가들과 국가에서 내놓은 대책과 대안 방안들은 인성교육보다는 즉각적인 효과나 순간적인 현상억제에 대한 부분에 치중되었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제대로 된 인성교육의 실천이 근본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성교육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효과적이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에 실시한 201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9월15일 -10월 24일까지) 결과에서 학부모들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인성교육 강화를 통한 인성회복(13.1%)이 필요하다고 응답, 적절한 가해자 조치(12.0%) 등 처벌 등보다 인성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이는 학부모들이 학교폭력의 원인을 가해학생의 인성 또는 가정환경(22.3%), 대중매체의 영향(20.3%), 나쁜 친구의 영향(16%) 등으로 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제민일보, 2014).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학부모들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현 정부도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학교에서부터 인성교육 및 인권교육을 당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인성교육의 실정은 학교 교육에 있어서 교육시간에 인성교육을 실시할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인식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교육만이 이루어질 뿐 아직까지 인성교육으로 인해 변화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의례적인 교육으로만 끝나버리는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다.

이렇듯 모든 이들이 학교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중요성 부분에서는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절대적으로 효과를 보이고 있는 인성교육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에서는 입시위주의 교육보다는 인성교육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가져 인성교육의 절대적 필요성에 대하여 이해시키고 인성교육에 대한 효과성을 재부각 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인 분위기와 학교의 주요 관심사를 입시만을 우선시하는 현재의 교육 환경에서 변화되어 무엇보다도 인성교육이 먼저라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인성영재학교나 대안학교를 활성화하고 이곳에 다니는 것에 대하여 선입견을 버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1.2 가정의 기능과 가정교육 역할의 확대

가정은 인간생활의 근본이자 삶의 원천으로 가장 기본적인 집단이다. 가정을 통하여 기본적인 인격형성이 되고 가치관 및 윤리의식이 확립되어야 한다. 가족이 해야 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그 가족은 가족 갈등이나 가족 폭력, 유기, 방임 등 다양한 문제를 만들게 될 것이다.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늘리고 대화하는 방법은 가장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산업화로 인해 핵가족화 되면서 본래의 가정의 기능을 많이 상실하고 있고 함께하는 시간과 대화부족 등으로 견해차이가 나타나고 갈등을 초래하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에 대안은 가족이 완전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때 응급조치 적으로만, 사후대책적인 대안들이 대부분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예방적 차원에서의 가족 상담제도나 가족 치료적 접근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앞으로 향후의 가정의 기능의 약화로 인한 가족교육 제대로 된 다양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 복지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핵가족화 현상으로 인한 가정교육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모는 가정교육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여 일관성 있고 계획적인 가정교육을 계획해야 한다. 그리고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 또한 많은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가정교육의 변화는 목표, 내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변화를 주어야 한다. 가장에서 자녀교육에 대한 계획적인 변화와 지속적인 노력은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며 가정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가정에서 배우는 예절이나 생활습관, 태도와 가치관 형성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 간에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부모와 자녀와의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 대화시간을 많이 늘리고 자녀의 고민과 문제를 같이 생각해보고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할 것이다. 그리고 자녀들이 접하고 있는 문화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이해하여 자녀와의 벽을 허물도록 해야 할 것이다(강숙경, 2007:71). 가족은 서로의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도록 배려하고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세대차이나 의견의 불일치는 살아가는 상황과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심각하면 서로에 대한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가 서로 본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가정의 양육방식과 교육은 학생의 인성을 결정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자녀와의 대화와 소통은 학교 폭력의 예방을 위해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듯 서로간의 노력을 통해 변화를 준다면 서로를 이해하고 고민이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서로가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3 전문 상담인력 확충과 사회적 환경개선

상담인력 확충은 곧 전문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상담사와 상담교사의 인력 확충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정부와 학교 측은 이런 전문 인력들이 필요함을 인식하면서도 실질적인 증원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아주경제 2014년 9월 17일에 등록된 기사“초등학교 학교폭력 전문 상담교수 배치 부족”에 실린 기사 내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폭력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교폭력은 2011년 1020건, 2012년 3156건, 2013년 3535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점차적 초등학교 학교폭력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한 초등학교는 전국 5896개교 중 19개교(0.32%)에 불과했다. 서울(596개교), 경남(492개교), 강원(350개교), 광주(148개교), 제주(109개교)의 경우 전문상담교사를 둔 초등학교가 단 한 곳도 없었다. 또한 전남일보 2014년 9월 18일 등록된 기사“광주 초등학교 폭력전문 상담교수 0”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초등학교에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가 단 한 명도 배치돼 있지 않고, 위기 학생들을 상담하고 치료하는 위(Wee) 클래스 설치율도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또한 전문인력 배치는 소홀해 광주는 148개 초등학교에 단 한 명의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도 배치돼 있지 않고, 전남은 단 1명만 배치된 상태.’라는 기사가 나왔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전국에 학교폭력 관련 전문 상담인력의 수가 절대적으로 극히 매우 부족하고 전문상담인력의 배치도 극히 미진하고 시급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위의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전문 상담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 배치도 극히 일부분에 그치는 실정이다. 물론 법률에 근거한 전문상담교사 배치근거규정은 있으나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문상담인력을 학생 수에 맞춰 배치하여 각 학년별로 상담인력을 배치하여 계획적인 상담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은 학생 인원과 학년별로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해야만 각 연령별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고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상담과 지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영양교사나 보건교사처럼 전문상담교사를 채용하여 학교 내에 전문상담실을 설치 및 운영하도록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주변이나 학생들이 자주 다니는 곳에 위치해 풍기문란 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유해업소나 우범지대 등에 대한 환경 개선과 규제 강화와 법률에 대한 부분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은 즉, 청소년기에는 호기심이 많고 자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유해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와 문화공간을 확보하여 사회적 환경을 변화시키고 인성교육이 병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1.4 보안요원의 활용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를 비롯해서 많은 시도에서 학교안전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학교보안관이나 스쿨폴리스, 배움터지킴이, 학교안전지킴이 등을 배치해서 학교안전 확충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활동하고 있는 보안요원은 전직 경찰관, 소방관, 퇴직 군인, 퇴직교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안전이나 학교와 관련 있는 전문가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전문성도 보장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교보안관은 제외하고는 다른 보안요원들은 자원봉사 형태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보안요원 활동이라 하기에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앞으로 보다 더 전문화된 보안요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준비가 필요 할 것이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교 안과 밖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보안요원이 절대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이는 보안요원의 활용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보안요원을 통해 학교폭력이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전문적인 보안 요원은 학교 내외부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여 학교폭력을 미리 탐지하고 위험요소가 포착될 경우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안요원 배치를 통해 교내외의 보안취약점을 찾아내고 안전에 대한 취약성을 진단하여 학교안전에 대한 보안 책을 지원한다. 또한 학교 폭력 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활동 할 수 있어 학교폭력 해결에 있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듯 전문 보안요원 활동을 통해 학교폭력을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배치를 학교폭력을 감소시키는 하나의 방법으로 고안하여 현재 활동하고 있는 보안요원 배치후 발생한 문제점을 보강하여 잘 훈련된 전문화된 전문인력이 전국적으로 확대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보안요원의 업무 조정 및 법적 권한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보안요원들은 명목상으로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등 각종 범죄, 비행 등을 현장에서 예방, 제지하고, 선도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그러나 명목상의 직무 외에 활동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업무가 명확하지 않아 분명한 한계를 지우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서 권한을 구분하기 위한 조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앞으로 학교안전에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교육과 전문화된 보안요원들의 활용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또한 전문 보안 요원의 배치가 꼭 필요한 경비실 운영 및 학교출입통제의 문제점 부분에 있어서도 전문요원의 배치로 1차적인 차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나라 전체 학교의 32%인 3,600교에만 정문에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외부 출입자 통제에 한계가 있다(경기개발연구원, 2014)는 결과도 나타나듯이 학교 안전 중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 출입통제에 있어서도 전문 인력의 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이들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책정하여 학교주변 청소나 잡초제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 관리인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6. 결론

학교폭력은 지역, 성별,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원인과 유형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학교폭력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개인의 심리적인 요인과 가정 환경적 요인, 그리고 학교 환경적 요인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또한 학교폭력 발생의 문제점을 입시위주의 교육환경과 인성교육의 부재, 가정의 기능 및 역할의 축소, 유관기관의 예방활동 미흡 등이 학교폭력을 부추기는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학교폭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이고, 즉흥적인 처방에 급급하기보다는 학교폭력의 다양한 원인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충동조절과 인내심을 기르도록 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기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학교와 학부모는 입시위주의 교육보다 인성교육을 먼저 실시하여 참된 인재로 거듭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정의 기능과 가정 교육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 즉, 핵가족화 현상으로 인한 가정교육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하여 부모는 가정교육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일관성 있는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셋째, 상담인력의 확충과 사회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즉, 보건교사나 영양교사와 같이 전문상담교사를 채용하고 전문상담실을 설치·운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주변이나 학생들이 자주 다니는 곳에 산재해 있는 풍기문란 행위를 조장하는 유해업소나 우범지대 등에 대한 사회적 환경이 개선하여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자제력이 적고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빠져들지 않도록 사회적 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보안요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현재 운영 중에 있는 학교보안관과 배움터 지킴이를 전직 경찰관, 소방관, 퇴직 군인 및 교사 등 안전이나 학교와 관련 있는 전문 인력을 고용하여 재취업과 학교안전의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Chonam Ilbo(2014). 'Gangzhou professional school faculty advisor violence 0', Search Day 9. 18 <http://www.jinilbo.com/read.php?aid=141096600451714004>
- Easy-to-find legal information life(2014). Overview of school violence,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35&ccfNo=1&cciNo=1&cnpClsNo=1>
- Gyeonggi Research Institute(2014).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introduced for Safe Schools Improvement, Ji Woo-seok gang, eunyoung, Iaaue 2014-161.
- Gwak, Byeong-uk(2011). A Study on the Actual Status of School Violence - Focusing on the Subjects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 Major in Social Welfare, Department of Welfare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Chung-Ang University of Korea
- Im Ung(2007). General Studies in Criminal Justice, 「beopmunsa」, pp. 328.
- Je Min Ilbo(2014). "The solution is character education school violence than punishment."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49113>
- Jun, Byung-il(2009). An Analysis on the Current State of School Violence and Students Perception on Counter measures -Focus in gon high school student sin Gwang ju Metro politan City- Major in Human Resources Policy and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al Policyand Administration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 Kang, Sook-kyong(2007). Study on the Counseling and life-guidance for Prevention of School-Violence in Korea, Department of Correction al and Counselling Education, Graduate School Kyonggi University of Korea.
- Kim, Sang-Gon, Bae, Jin-Hyung, Han, Jung-Sook, Kim, Hee-Young(2013). An Analytical Study on UK, US, Norway and Germany's Preventing & Solving Strategies of School Bullying,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Vol. 25, pp. 333-364.
- Kim Hak-bae(2014). The Study on Efficiency of Police intervention towards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Graduate School of Harsei University of Korea.
- Kim, Sun-Hyoung(2005). A Study on the Teachers and Students' Awareness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Master's Program in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Korea Youth Counseling Welfare Institute(2012). 170 youth counseling research school violence / Victim Parent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Journal.
- Kwon, Jeong-Goan(2012). An Analysis of the Present Condition of School Violence -Focus in gon middle and highschool students in Gumi-City, Gyeongbuk-,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Police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Administration, Yeungnam University of Korea.
- Lee, Bong-Joo, Kim, Ye-Sung, Im, Jeong-Im(2009). The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 School Violence Prevention Program : A Study Utilizing a Logic Model, Studies on Korean Youth, Vol. 20. No. 2. pp. 257~281.
- L. Berkowirz. (1974). "Some determinants of impulsive aggression, Role of mediated association with reinforcemants for agression", Psychology, Revision, pp. 165.
- Lee, Yong-Mi(2014). Analysis of the causes and alternative school violenc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Woosuk University of Korea.
- Min, Gyeong-Sam(2014) References - Department of Education, 2013 Second School Violence Survey data.
- National Police Agency(2008, 2013). White Paper, pp. 75, White Paper, pp. 98.
- Noh, Sung-ho(2004). "Status and Problems of School Violence," Korea Crime Prevention Foundation, Crime Prevention Forum, Vol. 15, pp. 11-33.
- Park, byeong-sik(2013). "School Violence comprehensive plan announced a year! Its achievements and future challenges", Congress toronmun.
- Park, Ki-Min(2000). A study on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of our country- centering on the realities of the violence occurred in the middle high school-,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Kyung Hee University of Korea.
- R. A. Astor, W. J. Behre, K.A. Fravill & J.M. Wallace,. (1977) "Perceptions of school violence s a problem and reports of violent events: A national survey of school social workers", Social Work 42(1), pp. 794-802.
- Sohn, Kab-Joo(2005). The analysis of the children's attitude of side liners to the peer victimization, Majorin Child & Adolescent Welfare Dep. of Child Welfare and Studies, The Graduate School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of Korea.
- Song, Myung-Hwa(2014). A Study on the Moral Emotion Education for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Major in Ethic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 Wikipedia(2014). ko.wikipedia.org. Search Day 9. 30.
- Youth White Paper(2013). 1. 14, pp. 202.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_Guide/policy_Guide_07_07_01.jsp?func=view¤tPage=0&key_type=&key=&search_start_date=&search_end_date=&class_id=0&idx=693575